

정찬주 작가의
법정 스님이야기
⑱ 네 마디의 말

너무나 인간적인 자기 고백

사람의 말에서 아름다움을 느낀 적이 있다. 사람이 인간적이 되었을 때 말도 더불어 인간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길상사가 개원하는 날이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오시고, 덕 높은 여러 스님들이 오셨다. 극락전 앞에 단이 마련되었고, 단 좌우로는 자칭 타칭 내외귀빈들이 앉았다. 나는 마당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도 앉지 못하고 극락전 마당 끝에서 까치발을 한 채 단상을 주시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불교가 한반도에 전래된 과정을 길게 이야기한 뒤 길상사의 개원을 격려하는 축사를 웅변조로 했다. 한두 분의 축사가 더 이어지자 단하의 사람들이 좀 지루해 했다. 그때 고급요정 대원각을 아무 조건 없이 시주하여 길상사를 개원케 한 김영한 여사가 단에 올랐다. 한복을 입은 여사의 체구는 작았다. 여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하고 귀를 기울였다. 여사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이 서투른 듯했다. 어쩌면 부끄러워서 그런 듯도 했다. 그러나 내 귀에는 여사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불교를 모른다고 고백하는 말이 아름답게 들렸다. 전율이 등을 타고 흘렀다.



일러스트 · 정윤경

"저는 배운 것이 많지 않고 죄가 많아 아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불교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년에 귀한 인연으로 제가 일군 이 터에 절이 들어서고 마음속에 부처를 모시게 돼서 한없이 기쁩니다./ 제 소원은 여인들이 옷을 갈아입었던 저 팔각정에 종을 달아 힘껏 쳐보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단 네 마디였다. '나는 죄가 많다. 나는 불교를 모른다. 나는 부처를 모시게 돼 기쁘다. 나는 힘껏 종을 치고 싶다.' 경내를 가득 메운 수천 명의 가슴을 적셨던 여사의 자기고백과 원(願)이었다.

그때 법정 스님께서는 여사의 목에 염주를 걸어주었다. 그리고 길상화란 법명을 주었다. 스님이 여사에게 보답한 것은 그뿐이었다. 길상사가 개원한 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여사에게 "1천억 원 대의 재산을 기부한 것이 아깝지 않습니까"라고 묻자 그녀는 "재산은 그 사람 백석(白石)의 시 한 줄만도 못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개원법회 날부터 2년 뒤, 여사는 길상사를 찾아와 "나 죽으면 화장해서 눈 내리는 날 경내에 뿌려주세요"라고 유언하고는 다음 날 눈을 감았다며 당시 주지였던 C스님이 내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생생하다. C스님은 여사의 소원대로 팔각정에 종을 달아 범종각으로 만들었고, 눈이 내린 날 여사의 유언대로 뼛가루를 경내 뜰에 뿌려주었다고 덧붙였다.

시인 백석의 연인이었던 여사는 일제강점기 때 여창가곡과 궁중무 등 가무의 명인으로 이름을 떨쳤다고 한다. 그래서 죄가 많다고 했을까. 그래서 종을 달아 힘껏 쳐보고 싶다고 했을까. 길상화 보살이야말로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참으로 자기답게 살고 자기답게 죽은 분이 아닐까 싶다.

대사회 신뢰 · 신심 증장 광폭행보 '눈길'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임기 첫 달 마무리

종단 부실장 인선 미뤄지면서
대내외 결속력 다지는 데 나서
지진 · 세월호 · 무연고자부터
초하루법회 · 예불 참여까지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대사회 신뢰와 신심 증장을 위한 보폭을 넓히며 임기 첫 달을 마무리했다. 행정기반을 다지기 위한 부 · 실장 인선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높이는 데 우선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설정 스님은 지난 11월 16일 강진 피해를 입은 포항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사찰 피해현장을 답사하며 첫 대외활동을 펼쳤다. 스님은 흥해실내체육관에서 일일이 이재민들의 손을 잡으며 "정부와 국민이 여러분 뒤에 있다"며 용기를 북돋았다. 특히 보경사에서 만난 김종진 문화재청장에게는 조속한 문화재 복구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튿날, 설정 스님은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의 철수를 앞두고 목포신항으로 이동했다. 스님은 세월호 선체 앞에서 미수습자의 귀환과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20여 분간 염불했다. 이어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찾아 위안이 되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고 위로했다. 이에 가족들도 감사인사를 표하며 "스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인사했다.

18일 초하루, 설정 스님은 조계사 대웅전에 들어섰다. 대중을 위해 초하루법회 법사로 나선 것. 총무원장이 초하루법회서 대중 법문을 한 것은 지관 스님 이후 9년만이었다. 스님은 '인생을 사는 과제'를 주제로 심전경작(心田耕作)을 강조하면서 "밥 팔아 죽 사먹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굳센 마음으로 마음 밭을 갈라"고 당부했다.

21일에는 다큐멘터리 '님아, 그 강을 건너지마오'로 대중에게 감동을 선사한 진모영 불자감독을 만나 신작 '올드마린보이' 흥행을 기원했다. 설정 스님은 사부대중 상영회를 통해 진 감독을 응원하는 한편 "스님들이 중생세계를 이해하고, 세상을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영화라는 매체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진 감독과 함께 영화를 보고, 문화발전을 위한 후원금도 전달했다.

설정 스님은 22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함께 서울시립승화원 추모의집을 방문,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한 천도재에 동참했다. 이곳에서 3000여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홈리스행동 · 나눔과나눔 등 사회단체에 격려금을 지원했다. 아울러 23일에는 조계사서 직접 수험생들을 위한 수능기도 축원을 올리며, 수험생과 가족들 모두 좋은 결과를 얻길 기원했다.



무연고 사망자 극락왕생 기도(왼쪽)와 조계사 수능축원(오른쪽) 등 설정 스님이 총무원장 취임 후 종단 내 · 외적으로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이 같은 종단 대 · 내외적 행보는 이전 총무원장들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넓은 것으로 평가된다. 총무원 관계자들은 대사회적 활동에 방점을 찍은 자승 스님과 종단 어른으로서 기품을 보였던 지관 스님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고 말한다. 다만 이와 함께 많은 일정으로 인해 70대 중반인 설정 스님에게 건강상 무리가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설정 스님은 매일 조계사 아침예불로 하루일과를 시작하고, 총무원 아침조회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한 관계자는 "종단 수장이 많은 일과를 꼼꼼히 챙기는 것에 종무원들의 피로도가 평소보다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신 불자들의 신심과 대사회적 신뢰도를 쌓는 데는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 더 나은 조계종으로 거듭나기 위한 밑거름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적극적인 대 · 내외 행보도 중요하지만 스님의 연세가 많은 만큼 건강이 걱정된다. 일정을 적절하게 안배해 이 같은 걸음이 꾸준하게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도로 표지판서 사찰 삭제, 시대 역행"

설정 스님 · 교구본사주지協, 관련 부처에 문제제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표지판에서 천년고찰명을 삭제하는 작업을 잠정 중단했지만 불교계 반발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1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김종진 문화재청장 예방을 받고, 국토부 등이 추진했던 고속도로 표지판 사찰명 삭제에 대해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설정 스님은 "외국을 봐도 지역을 잘 소개할 수 있는 문화재를 활용한다.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더욱 장려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그런데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최근 벌어진 표지판 문제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 역행 정책을 부처 간 합의도 없이 진행했다는 데 더욱 답답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도로의 핵심을 알리기 위해 이뤄진 것 같다. 표지는 모자라도 안 되고, 넘쳐서도 안 된다. 부처 협의를 통해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11월 1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고속도로 표지판 관리지침 개정과 복원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국토교통부는 2003년 고속도로 표지판에 국가지정문화재를 제외한 데 이어 2006년 세계유산마저 도로표지를 하지 못하도록 제외했다. 정부 스스로 세계유산을 비롯한 천년고찰보다 사기업 등 영리시설을 더 홍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은 뒤 "이러한 지침 개정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 세간에 전통문화 홀대와 종교 편향성 의혹이 일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토부가 국가 제작 전자지도에서 사찰을 삭제한 '알고가'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전통문화에 대한 보전과 계승은 문화관련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님을 장관 이하 공직자들이 명심해야 한다. 관련 지침 개정과 더불어 기 철거한 표지판의 복원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 윤호섭 기자

"사찰 재정 확보 출재가 총지 모으자"

조계종 포교원, 창원지역 불교 활성화 대중공사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11월 17일 마산 정법사에서 지역 불교 활성화를 위한 세 번째 대중공사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대중공사에는 창원지역 사찰 관계자와 불교대학 임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중공사는 탈종교화 시대를 맞아 불자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위해 열렸다. 기조발제를 맡은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가장 먼저 스님들이 변화하고 그리고 신도들의 신행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기복적인 불교신행에서 실천하고 삶 속에서 자비행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신행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중공사는 창원 구룡사 주지 신공 스님의 창원지역 불교대학 현황과 구룡사 운영 사례에 관한 주제발표에 이어 모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동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주지 지태 스님은 "현재 한국불교가 위기라는 말이 많다. 말세라는 평가가 정법시대라는 평가로 바뀔 수 있도록 오늘 모인 불자 개개인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신공 스님은 "불교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사찰 재정 안정화에 대한 고민을 스님들뿐만 아니라 사찰 신도들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며 "다양한 기도나 재로 인한 수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출재가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중공사에서는 스님, 재가자, 종무원 등 다양한 계층별 위기 극복 방안이 모색됐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호남 · 의성 · 창원지역 대중공사에 이어 강원지역 대중공사 등 지역별 대중공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11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